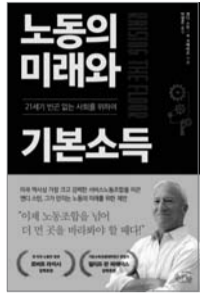


인공지능에 빼앗긴 직업 기본소득이 대안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앤디 스티븐·리 크래비츠 지음, 박영준 옮김



얼마 전 차량 공유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추진 계획에 택시 업계가 반발하면서 택시 기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다. 논란 끝에 일정한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양측이 합의를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온전히 사라진 것일까. 또한 이러한 갈등이 비단 택시 업계에만 한정된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노동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에 인공지능과 첨단기계가 투입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연급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 업계 충돌은 상징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택시 운전은 높은 수준의 기술 직종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은 누구나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한다. 고객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더해지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여기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차를 운전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은 점차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인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직업이 미래에도 안정적인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인공지능이 전문가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 속도를 보면 인공지능은 더 많은

분야를 점유했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이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컬럼비아대학교 선임 연구원인 앤디 스티븐과 '퍼레이드' 편집장이었던 리 크래비츠가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펴냈다.

이들은 "이제 노동조합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14년간 북미 서비스노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던 앤디 스티븐은 조합장에서 물러나며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1세기 경제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한적 일 거라 예측한다. 노동조합 자체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노동 환경 때문이다. 그의 질문은 간단하다. "나와 동료들이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강하게 만드는 일에 계속 매달린다면, 25년 후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

이에 대한 답은 이렇다. "노동조합은 여



머지 않은 장래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동현장은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수많은 실업자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교량 건설 현장의 난간에서 서 있거나 걸터앉은 노동자들의 아슬아슬한 모습이 노동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갈마비람 제공>

전히 중요하지만 25년 후 노동자들에게 닥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제 노동조합을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저자들은 지금 진행되는 기술 속도는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 노조 지도자, 기업의 CEO, 미래학자, 경제학자, 투자가, 역사가, 정치인 등을 만나 그들이 예견하는 노동의 미래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때문이다.

물론 저자들은 과거 산업혁명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는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형태는 아니다. 기업은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일 자리를 대체하거나 임시직 노동자를 두려워 한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부가가치 직업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수많은 실업자'가 존재하는 기형적인 사회로 재편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노동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그때문이다.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본소득이든 다른 대안인 사회적 토론토인 요구되는 시점이다. <갈마비람·1만8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을 통하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이정모 지음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은 자신을 '과학 거간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이라고 말한다. 웬지 어렵다는 선입견이 강한 '과학'을 일반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간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소재와 쉽고 유쾌한 글쓰기로 일반인들이 과학과 친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출간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는 과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의롭

게 되어준다. 엉뚱한 질문, 풍부한 유머, 새로운 통찰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이 주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책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소음 공해를 낳았다', '코끼리를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건 플라스틱이다', '차별 대우를 받으면 원숭

이도 오이를 집어 던지며 항의한다', '우월한 유전자, 열등한 유전자는 없다'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즐비하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과학의 쓸모'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꿈을 되찾은 사례 등을 통해 과학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2부 '사랑이 이긴다'에서는 과학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3부 '의심 능력'에서는 그릇된 통념과 잘못된 신화를 바로 잡아주고 4부 '동물의 도움'에서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했던 동물들을 소개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한다. 5부 '함께 살만한 곳'은 이 지구를 함께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소개한다. 책 마지막에는 1권 발간 당시 궁금증을 모아 질문을 던진 인터뷰를 실었다. 저자에 대한 궁금증, 과학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 정치 비판이 강하게 개진된 내용에 대한 호불호 의견, 과학자의 일상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는 왜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과학은 어떤 의문에 대한 잠정적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과학적 태도"라고 답한다. 또 "우주라든지 생명의 기원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될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우리가 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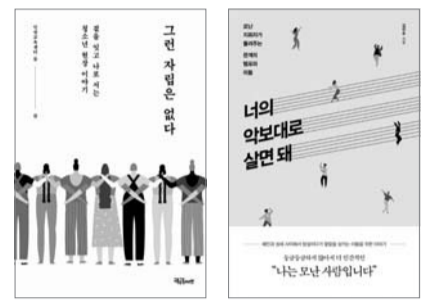
<바틀비·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세먼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한국 기상협회 이사와 기상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식씨와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기후산업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기성씨가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이를 해결하려는 국민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리스마-2만2000원>

▲소년을 위한 재판=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인 심재광씨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공명·1만7000원>

▲그런 자립은 없다=청소년 자립 지원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고 청소년을 만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철학과 방법을 모색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인권교육운동 활동가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며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청소년의 자립이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청소년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 준다. <교육공동체벗·1만4000원>

▲나의 악보대로 살면 돼=지휘자 김진수씨가 풀어낸 서른 가지 소통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관계를 음악, 그중에서도 합창에 접목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지은 이는 사회생활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과 비슷하다는 데서 착안해 자신의 경험담과 성찰을 촘촘히 엮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더난출판사·1만3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빠! 내 얘기 들려?='비빔빔' 만화가로 잘 알려진 홍승우 작가가 예비 엄마 오수정, 예비 아빠 홍태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그린 임신, 태교 만화 40여 편을 모은 책이다. 임신 기간 40주 동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예비 엄마 아빠가 서로와 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마음과 태도를 보여준다. <책담·1만3500원>



▲우주로 갈 김명공=유치원에 가기 싫은 명공이, 그래도 유치원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기 위해 현장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에 말이지, 유치원에 안 가면?' 순간의 상상이 그림책 속에서 신나게 펼쳐진다. 주인공 명공이를 시작으로 왕밤 선생님과 호두 경찰, 아몬드 친구 등 친구들과 모험을 한 캐릭터들은 물론, 오징어나 다람쥐 등 견과류와 관련 있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모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명공이의 당연하고도 감쪽한 욕심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세계절·1만2500원>



▲손으로 말해요=2009년 뉴욕타임스 '최고의 그림책'에 선정되고, 2010년 에즈라 잭 키츠 상을 수상하며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유태은의 그림책을

뮤지션 루시드폴이 다정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 그림책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의 어느 봄날 하루를 따라가며, 우리가 손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결을 잔잔하게 그린다. 아기는 손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손을 통해 그 사랑을 되돌려 준다. 손짓은 단순해서 더욱 빛난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